

광주송정역, 머물고 싶은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광산구-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
호남권역 관문 기반시설 부족
3600㎡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

호남권역의 대표 관문 광주송정역에 편안히 머물며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이 추진된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9일 구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와 '광주송정역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5000여명, 유동 인구는 4만4000여명이 다니는 호남권역의 관문이다.

하지만 타 고속철도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요구가 컸다.

민선 8기 들어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

청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광장 조성을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고,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도 지속해서 상호 협의를 추진하는 등 '광주송정역 광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실로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송정역세권 KTX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주송정역에 약 3600㎡ 규모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는 역 주변 용지 사용을 지원하고, 광산구는 만남의광장 조성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광산구는 내년 12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누구나 편히 머물며, 쉴 수 있는 쾌적한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9일 구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와 '광주송정역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협약 이후 내년 초바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광장에 들어갈 시설물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송정역 이용객들과 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광주 관문다운 멋진 공간을 시민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통합돌봄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광산구, 2007명에 12만건 제공

광주 광산구는 지난 19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2024년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에는 광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처방 건강활동가, 호남대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광산구는 2024년 한 해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운영 성과, 서비스 제공 사례를 공유했다.

광산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서비스에 광산구만의 특화사업(휴블런스, 방문구강·방문간호, 마을바카페, 서비스 채움)을 더해 시민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07명에게 12만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삶의 안정을 지원했다.

광산구의 특화사업인 방문구강·방문간호 서비스는 사업의 효과성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광주 5개 자치구 공동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광산구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자율과제 결과 보고, 국립장성성체원과 운영하는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소개, 통합돌봄 제공기관 우수사례 발표 등도 진행했다.

2025년 통합돌봄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상철 기자

남구,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2034년까지 57% 감축 계획

광주 남구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오는 2034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7%까지 감축하는 밀그룹을 내놴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20일 오후 구청 상형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소속 위원 17명과 용역 수행기관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중기 로드맵'과 '2045 장기 로드맵'에 대해 논의의 진행했다.

남구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정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및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남구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을 기준연도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오는 204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2018년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인 99만7000톤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54만8000톤(감축률 45%) 수준으로 줄이고, 오는 2034년에는 42만6000톤(감축률 57%)까지 낮출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방안은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물분야에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에 따라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시설을 보급하고, 민간 건축물 분야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와 모빌리티, 자전거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을 높이면서 승용차 통행량은 줄여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남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각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동구가 지난 19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건강도시 주민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제2회 건강도시 주민 100인 토론회' 성료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사례 공유

광주 동구가 지난 19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건강도시 주민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통합공모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각 공동체가 추진한 사업 성과와 어려움, 해결책 등의 사례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동구가 개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체조인 '동구랑 건강 체조'의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주민 자유 토론회를 진행했다. 건강 체조는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동구랑 건강체조를 마을 안에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내년에는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건강도시 동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명의 집단지성을 통해 산출된 주민 의견을 활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서구, 내년도 본예산 6759억원 확정

민생안정·생활복지 확대 초점

광주 서구가 2025년도 본예산을 6759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서구는 지난 19일 서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6538억원으로 13억원(0.21%)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5억원(2.24%) 감소했다.

서구는 내년에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자치 실현,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조성, 수요자 맞춤형 복지

도시 구현,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구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육성 사업 18억원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프라 구축 사업에 19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828억원 △생계급여 717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2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

트경로당 조성 9억원 △스마트 교차로 설치 4억원 등 기술과 주민 생활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사업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주민이 제안한 마을의제사업 8억원이 반영돼 주민 참여형 행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정세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안정과 생활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구민의 윤택한 삶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6년 연속 재정규모 1조원 돌파
북구, 내년 예산 1조416억원 확정

광주 북구는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612억 증액된 1조416억으로 확정돼 6년 연속 재정규모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37억원, 특별회계 79억원 등으로 지난 20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1조원대 예산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출 구조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 '사회복지',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 등의 중점분야에 예산을 적극 투자하며 재정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민생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2억1000만원, '지역 밀착형 e-커머스 소상공인 라이온타운 조성' 12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6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분야에는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4000만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8억원 등이 투입됐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 급여' 9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460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74억원, '아이 돌봄 지원' 81억원 등이 편성됐다. **윤준명 기자**